

북한개발소식

2024 SEP

09

통권 227호

이달의 주제

변화하는 북한 여성과 선교

탈북민 수기

손이슬 자매 (제 6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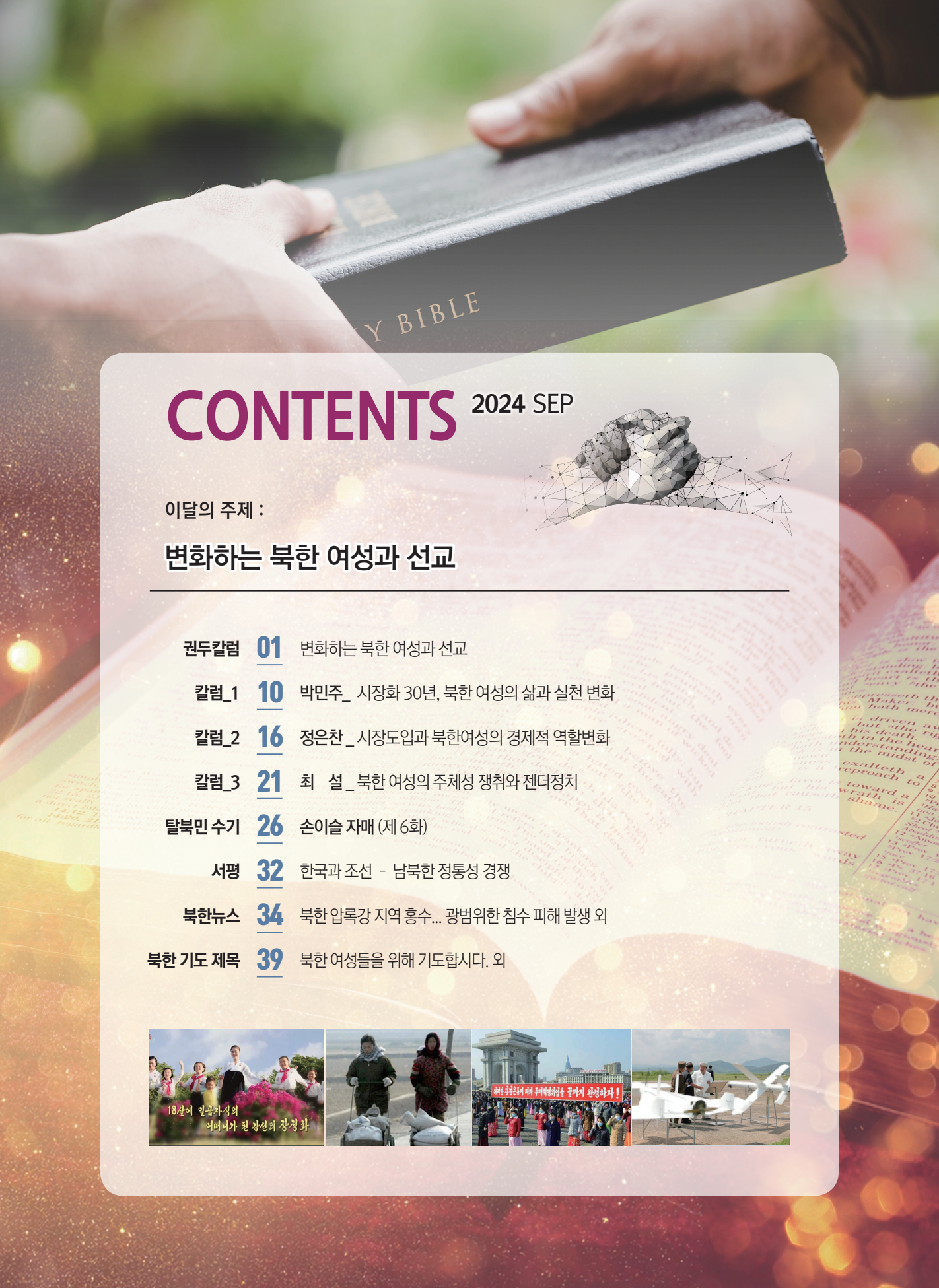
북한뉴스

북한 압록강 지역 홍수...
광범위한 침수 피해 발생 외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CONTENTS 2024 SEP



이달의 주제 :

변화하는 북한 여성과 선교

- 권두칼럼 **01** 변화하는 북한 여성과 선교
- 칼럼_1 **10** 박민주_ 시장화 30년, 북한 여성의 삶과 실천 변화
- 칼럼_2 **16** 정은찬_ 시장도입과 북한여성의 경제적 역할변화
- 칼럼_3 **21** 최 설_ 북한 여성의 주체성 쟁취와 젠더정치
- 탈북민 수기 **26** 손이슬 자매 (제 6화)
- 서평 **32** 한국과 조선 - 남북한 정통성 경쟁
- 북한뉴스 **34** 북한 압록강 지역 홍수... 광범위한 침수 피해 발생 외
- 북한 기도 제목 **39** 북한 여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외



권두칼럼

변화하는 북한 여성과 선교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북한 사회는 밖에서 보기에는 정체되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내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별히 고난의 행군 이후 도입된 시장 경제적 요소들은 북한 사회를 밑바닥부터 변화시켜왔다. 국가가 아닌 시장을 통해 자신들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와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 ‘장마당 세대’의 대두가 그 중 하나다.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북한의 변화 중 하나는 북한의 여성에 관한 것이다. 북한은 공산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일찍부터 남녀평등과 여성 권리 신장을 명문화해왔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온 가부장적 문화가 유지되어 왔다. 북한 당국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기존의 가부장적 문화 코드를 수용하여 수령을 민족의 어버이로 내세우며 우상화하였고, 사회 통제 시스템에 있어서도 각 집안의 가장들을 국가 배치 직장과 의무적으로 매칭시키고 이를 배급 시스템과 연동하였다. 이는 자연스럽게 북한 내 남성 중심, 가부장 중심의 문화의 강화로 이어졌다.

그렇지만 장마당의 대두 이후 이러한 움직임에 변화가 감지된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이어지고 있으며, 사회 문화의 변화를 넘어 당국의 정책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북한 여성을 중심으로 그 변화의 양상과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특별히 북한 선교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장마당과 여성의 권리 신장

고난의 행군 이후 가정 경제를 지탱해온 것이 바로 여성들임은 이제 상당히 알려진 사실이다. 국가의 배급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가 배정한 직장 역시 가족들의 생계유지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하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통제를 벗어날 수 없는 남성 가장들을 대신해 여성들이 장마당을 통해 경제활동에 뛰어들어온 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이러한 가정 내 여성의 역할 변화는 자연스럽게 여성의 지위와 권리 신장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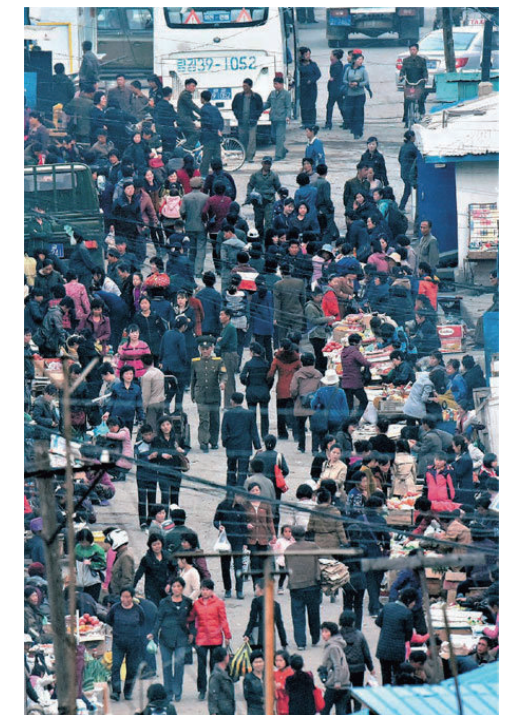
탈북민들을 통해 들려오는 북한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면 남편과 아내상의 변화가 좀 더 뚜렷하게 다가온다. 아내는 남편을 하늘같이 떠받들어야 한다는 식의 부부간 관계에서 벗어나 좀 더 평등하거나 오히려 아내의 입지가 더 강화되는 모습이라는 것이 탈북 여성들의 이야기이다. 남편을 ‘낮 전등’ (낮에 켜진 전등처럼 쓸모없는 존재임을 표현)이나 ‘멍멍개’(집만 지키는 존재라는 표현) 등으로 부른다는 탈북 여성들의 이야기¹는 가정 내에서 역전된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가정에서 여성들의 입지 변화는 단순히 여성 경제력 증대 때문만은 아니다. 직장을 벗어날 수 없는 남편에 비해 장마당 활동을 하는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증가하고 외부활동이 확대되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여성들을 집 밖의 세상에 눈을 뜨게 해주었다. 박민주(2024)는 여성이 생계부양자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이러한 이동성의 남녀 격차가 역전되었다는 사실, 이 둘 사이의 사고방식과 행동 방식 등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고 분석한다.² 이전에는 여성이 세대주 남편이 국가로부터 배정받은 직장과 지역을 벗어날 일이 희귀했다면, 이제는 집을 벗어나 장마당에서, 또 먼 지역을 며칠씩 이동하는 등 생활 반경을 넓히면서 각종 경험과 정보를 습득하게 된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북한 여성들의 시야와 사고, 행동의 변화로 이어졌다.

가정 내에서의 남편과 아내, 남녀의 역할 변화는 이제 사회적으로도 용인되는 모습이다. 이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지점 중 하나가 북한의 문학작품에서 보이는 남성들의 역할 변화이다. 그 동안 북한 문학에서 남편들은 바깥일에 종사하고 아내는 전적으로 내조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면, 최근에는 북한의 남성

들이 집안일과 육아에 참여하거나 더 나아가 외조에 전념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 2017년 작품인 ‘행복한 사람들’에서는 처음에는 사회생활을 하는 아내가 가정에 소홀하여 남편과 갈등을 빚었지만, 이야기 후반에는 남편이 아내의 일을 지지하고 갈등이 해소되는 모습을 담았다. 같은 해 출간된 소설 ‘은하수’에서는 구체적으로 묘사되지는 않았지만 전문직 여성이 화장품 연구에 매진하는 가운데 그를 남편이 전적으로 외조하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그동안의 북한 문학 안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주어졌던 역할이 바뀌는 모습이다. 비록 이러한 문학 작품에서의 남녀 모습이 현실사회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공식적으로 출간된 북한의 문학작품에서의 묘사인 만큼 최근 북한 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간접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³

그렇지만 북한 여성들의 권리 신장에는 여전히 많은 제약 사항들이 있다. 장마당 활동의 주역으로 여성들이 부상했다고 하지만 이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여성들의 장마당 활동은 대체로 주변적인 일로 간주되는 가운데 규모 있는 사업이나 비즈니스는 여전히 남자의 지위나 권위가 필수적이다. 남편이 권력이 있어야 자신의 시장경제활동이 보호를 받고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적영역에서는 성별에 따른 일종의 ‘유리천장’이 작용하고 있어 여성들이 높은 지위에 배치되거나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다보니 여성들이 돈을 벌어서 남편을 출세시키고, 남편이라는 배경을 통해 장사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경향이 관찰되기도 한다.⁴



〈2019년 해산시 장마당의 모습. 시장에서 장사를 하거나 물건을 살펴보는 손님 대부분이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동아일보 홈페이지)〉

북한 당국의 여성 정책

북한과 같이 국가의 힘이 막강한 곳에서는 사회적 분위기나 문화도 중요하

1 “남편은 낮전등·멍멍개” 달라진 북한 여성들, 무슨 일?, 조선일보 온라인 (2024.02.06.),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4/02/06/WP4JA3GWVZDUZK5G6NTAWU7GWY/>

2 박민주 (2024), “북한 주민의 모빌리티와 이동·통치·젠더”, 현대북한연구, 27권 1호(2024), 258~305.

3 고자연(2021), “김정은 시대 문학에 나타난 여성 형상화 연구 —『조선문학』(2016~2019) 수록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30, 123~155.

4 조정아 외,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서울: 통일연구원 KINU연구총서 19-07 (2019), 194~197.



〈북한은 남포시 천리마 구역의 장정화 씨가 18살부터 아이들을 입양하기 시작해 이제 성인이 된 만이부터 10대 초반 막내까지 고아가 된 아이들을 거두고 돌보아 조국을 위한 일꾼으로 길러냈다며 '처녀어머니'로 선전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성들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김정은 시기 여성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1) 전문직 여성의 등장 장려, 2) 공식 부문으로의 여성 동원, 3) 모성과 출산에 대한 강조, 4) 용모와 옷차림 등 자기 표현에 대한 통제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북한은 자력갱생의 기초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재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여성들도 국가의 인력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과학기술 장려에 따른 전문직 뿐 아니라 단순 노동력으로서의 동원 모두를 포함한다. 먼저 최근 북한에서는 기존에는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첨단 분야 직종이 여성들의 직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성들도 과학기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고 국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독려한다. 그러면서 또한 '가두여성'이라고 불리우는 전업주부들에 대한 노력 동원이 강조되었다. 2016년 제 7차 당대회를 앞두고 근로여성 뿐 아니라 가두여성에게도 20일 전투, 200일 전투 등으로 동원되기도 하였으며 같은 해 열린 33년만의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제 6차 대회에서도 가두여성들에게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전투장들에 적극 진출하여 한몫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표현으로 사회활동 참여 독려가 재차 강조되었다. 공식부문에서의 노동력 공백을 각종 사회 건설과 작업에 가두여성을 동원함으로써 해결하려는 모습이다.⁵

북한 당국이 여성들에 대해 강조하는 또 하나의 영역은 바로 출산이다. 북한 역시 남한과 같은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유엔 추정 북한의 출산율은 2010년대 1.85명 선이다.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에서 올해 초 발간한 관련 보고서에서는 2010년대 북한 출산율을 1.38명 수준으로 분석하기도 했다.⁶ 인구 유지를 위한 출산율이 2.1명대인 것을 감안하면 북한의 출산율

이 상당히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다보니 북한 당국은 자녀를 많이 낳아 키운 여성들을 '모성영웅'으로 칭하며 더 많은 출산을 독려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당국의 모성에 대한 강조는 단순히 다자녀 출산을 넘어 사회적 개념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김정은 집권을 전후로 북한의 영화에 등장하는 모성영웅의 이야기이다. 영화 '눈 속에 핀 꽃'(2011)은 망해가는 공장의 새 지배인이 된 여성이 동료들이 남긴 고아를 키우며 공장을 부활시키는 이야기를 담았다. 영화 '우리 집 이야기'(2016)은 고아 7명을 거둬 키웠다는 20살의 처녀 장정화의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이다.⁷ 영화의 실제 모델인 장정화는 북한에서 '처녀어머니'로 불리며 모성영웅의 이상적인 모델로서 대대적으로 선전되었다.⁸ 이러한 모습은 혈연을 넘어 사회 전체로 모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인구감소와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여성들의 출산율 증대와 모성 강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북한 당국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 외에 북한 당국의 여성 정책 중 특이한 사항은 여성들의 언어, 옷차림, 헤어스타일 등에 대한 폭넓은 규제이다. 여성들이 옷차림과 몸단장을 고상하고 건전하게 해야 하며, 자본주의와 이색적 생활양식을 뿌리 뽑으라는 요구이다. 북한 당국이 여성들의 꾸밈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김정은 시대 주력 산업 중에는 화장품 산업이 포함되어 있고, 적당한 수준의 화장은 오히려 도덕이며 교양으로 여겨지기도 한다.⁹ 그렇지만 당국이 판단하기에 퇴폐적이거나 사치하고 요란한 옷 등은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당국이 바라는 바람직한 여성상에 대한 강조와 함께 외부사조 유입과 맞물린 사상적 이반에 대한 경계와 맞닿아 있다.

이렇듯 북한 당국은 표면적으로는 민족의 '꽃'으로서 여성을 칭송하고 기존에 여성의 진출이 어려웠던 분야에서도 전문 여성 인력 활동을 장려하는 등 여성의 지위 향상을 긍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의 내면에는 더 많은 여성 노동력 활용하고 국가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요구가 큰 것으로 보여 진정한 남녀평등의 증진보다는 노동력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국가적 필요가 크게 작용하는 모양새이다.

7 조정아 외(2019), 앞의 책, 71-75.

8 북한, 고아 키우는 '처녀 어머니' 띄우기... "조국 위한 헌신", 연합뉴스 (2015.07.02.), <<https://www.yna.co.kr/view/AKR20150702085400014>>

9 강동원(2019), "김정은 시대 북한 화장품의 '선전'과 '실제' - 화장품을 통해서 본 북한여성 문화", 한국문화기술 제 26호 (2019.2), 148-155.

5 조정아 외(2019), 앞의 책, 51-54.

6 "[뉴스In] 북한도 저출산에 신음 '1.38명'...남북한 모두 출산율 심각", 매일신문 홈페이지 (2024.01.21.),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011914401575116>>

북한 여성들의 과도한 부담과 그 반작용

과거에 비해 북한 여성들의 지위나 역할이 신장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점차 무거워지는 여성들의 의무와 책임이 동반된다. 이미 북한 여성들은 공식 직장에 매여 가족 경제를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게 된 남성 가장들을 대신하여 장마당이라는 비공식 경제부문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 당국은 여성들을 국가경제 발전에 동원하고자 각종 국가발전 사업에 노동력으로 활용하고 비공식 경제인 시장에서 국가 공식 영역으로의 복귀를 종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가정 문화는 전에 비해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여성이 출산과 육아, 집안 살림을 책임지는 모습이다. 북한 여성들은 생계를 위한 가족 경제를 책임져야 하면서 동시에 출산과 육아 등도 잘 해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이 지워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적인 노동력 동원까지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있다.¹⁰

북한 여성들의 과도한 부담은 자연스럽게 여성들에게 결혼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 여성들의 가족 경제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결혼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다. 또한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많이 낳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거에는 남편 세대주가 직장에서 가족의 머릿수만큼 배급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여성이 실제적인 생계를 위한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아이를 양육하는 비용 부담 뿐 아니라 임신과 출산의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경제활동의 제약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미 결혼한 가정의 경우도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생계부양자가 된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장사를 위해 이동이 많아지고 남편 외의 여러 남성들과 접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남편 대신 마음이 잘 맞는 파트너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소위 8.3 부부¹¹들이 생겨났다. 과거 지역과 인맥에 기반하여 결혼하고 남편의 지역과 직장에 여성이 귀속되는 구도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나 연애 빙자 사기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¹²

변화하는 가정관에 더해 젊은이들의 의식과 문화도 바뀌고 있다. 결혼에 대한 기피와 외부 문화를 통해 기존에 북한 사회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로맨스적 사랑”이 전파되면서 연애와 동거 등의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결혼 전 한 과정으로서 동거 문화가 확산되었는데, 점차 결혼 자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동거하는 연인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2010년 제정된 ‘녀성권리보장법’을 통해 이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가족해체를 막기 위해 관행적으로 이혼의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으며 판결 기한도 1~2년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다보니 동거는 하더라도 결혼 등록에는 신중해지기도 한다.¹³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혼전임신이나 미혼 여성의 피임, 낙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사회주의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터부시되며 적절한 의료적 도움을 받기도 어렵다. 북한 미혼 여성들의 피임 방법은 주로 ‘고리’라 불리는 자궁 내 장치인데 이를 시술 받는 경우나 불가피하게 낙태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 공적인 보건의료체제가 아닌 허가 받지 않은 사설 의료 체계에서 주로 이루어지다보니 위생문제나 의료사고의 가능성 등이 상존한다.¹⁴ 성 관련 교육도 부족하여 여성들은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알음알음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형편이다.

북한 선교와 북한 여성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는 한국 교회가 북한 여성들에게 더욱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장마당을 통해 상대적으로 진취적이면서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된 북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음에 더욱 열려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북한 여성들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과도한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 압박감은 여성들의 결혼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 여성들이 나라와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증거한다. 북한의 여성들에게 복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는, 기쁨을 회복시키는 복된 소식이 될 것이다.

또한 북한 여성들은 북한 복음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자신이 속한 조직과 가족, 이웃 정도와만 관계를 가지는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은 장마당을 통해 기존의 지역사

10 강채연 (2020), “북한 여성노동력의 경제적 의미와 인권: 사회적 참여정책과 영향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59권 2호, 7-45.

11 8.3부부는 남녀가 각자 배우자가 있지만, 장사하면서 만난 일시적인 부부, 즉 불륜 부부를 말한다. 참고: “북한 8.3이 만들어 낸 어두운 그림자”, 대구경제신문 (2023.08.26.) <<http://www.dge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95>>

12 박민주(2024), 앞의 글, 292-298.

13 ‘딱딱한 삶에 결혼 말고 동거’…북한 정권 위협하는 ‘뜨개부부’들, BBC 코리아 (2024.05.09.),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ydr2de6pgvo>>

14 조정아 외(2019), 앞의 책, 237-241.




〈코로나 시기 중국 단둥의 섬유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여성노동자의 모습. (사진=더 가디언)〉

회 외에도 지역을 넘나드는 폭넓은 친분과 경제적 관계를 매개로 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북한 복음화에 있어서 분명 중요한 연결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다만 가정의 의미가 약화되고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형태의 성(性) 문화가 확산되는 모습, 또 유물론적 가치관에 따른 물신주의의 확산에 더 강도 높게 노출되어 있다 보니 나타날 수 있는 강박함 등 여러 장애물들이 예상되며, 이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극복하도록 도울지가 앞으로 선교 현장과 교회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

선교 현장에서는 이전부터 북한 남성보다는 북한 여성들과의 접촉이 많았다. 탈북자의 경우 앞서 언급한 여러 여건 상 여성들이 탈북에 용이한 측면이 있었고, 또 비인도적이긴 하지만 제 3국의 북한 여성들에 대한 수요로 인해 제 3국 체류가 남성에 비해 가능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공식적인 친척 방문자도 경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을 뿐 아니라 국가 해외 파견 노동자로도 상당수의 여성이 국경을 넘어 제 3국 지역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미 북한 여성들은 북한 선교에 있어 그 시작점 및 연결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제 3국에는 많은 수의 탈북 여성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그들 중 상당수는 북한의 가족과 연락을 유지하며 자신들의 상황도 여의치 않지만 가능한 도움을 전하기도 한다. 또한 코로나 대유행 이후 외부로

의 민간인적교류는 재개되지 못하는 와중에도 북한 여성들은 해외 노동자로 파견나와서 외화벌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선교 현장의 소식에 따르면 해외 북한 여성 노동자들의 생활환경이나 처우는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선교 환경이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지만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역이 중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교회의 관심이 더욱 요청된다.

북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성경의 ‘자주장사 루디아’(행 16장)의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다. 바울이 유럽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첫 열매가 바로 ‘루디아’이다. 두아디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는 마음을 열어 자신뿐만 아니라 집안 모든 사람들을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귀신들린 여종을 치료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뒤 돌아간 곳이 바로 루디아의 집이었다. 당시 고급 옷감으로 취급되던 자주색 옷감을 취급했던 루디아는 일종의 여성 사업가라고 할 수 있다. 마치 북한에 많은 여성들이 그러한 것처럼 말이다. 유럽 지역을 향한 바울의 전도여행의 첫 열매가 되었고,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 설립에 큰 역할을 했던 루디아를 보며 앞으로 북한이 열리고 복음이 전해질 때 그곳에 루디아와 같은 하나님이 택하신 북한 여성들이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낮은 자를 들어 쓰시는 주님께서 그 동안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불평등을 경험하고, 경제 활동을 통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가정에서 부여되는 과도한 부담에 시달려온 북한의 여성들을 통해 더욱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리라 기대하며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를 요청한다. 

시장화 30년, 북한 여성의 삶과 실천 변화¹

박민주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연구교수)

북한당국 주도의 배급제가 붕괴된 지 30년이 흘렀다. 시장을 기반삼아 여성들이 가족 생계를 책임져 온 세월도 30년이 된 셈이다. 그 긴 시간 만큼, 북한의 역사는 여성들에 의해 새롭게 쓰이고 있다. 이 글은 북한에서 출산 및 결혼 기피가 여성들의 생존 전략으로 자리잡게 된 상황을 살펴보고, 일련의 변화가 갖는 의미와 기도제목을 간략하게 나누고자 한다.

1. 저출생의 북한적 의미와 북한당국의 ‘뒤늦은 후회’

2023년 12월 4일,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가 개최되었다. 북한당국의 연설에서 ‘어머니’와 ‘여성’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만큼, 어머니대회 개최는 북한당국이 ‘여성’을 달래고 설득할 필요가 있

었음을 시사한다. 이 대회는 1961년 개최되었다가 약 40년 정도 열리지 않았는데, 인구가 감소하고 여성이 생계부양자가 된 “고난의 행군” 말기, 곧 1998년부터 재개되었다. 3차는 시장폐쇄조치로 여성의 반발이 첨예해졌던 2005년, 4차는 많은 여성들이 피담 흘려 모은 장사 수익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화폐개혁’ 직후인 2012년 열렸다.

4차 대회 이후 11년만에 열린 5차 대회에서 김정은은 여성들을 향해 “다른 나라 녀성들 같으면 며칠도 못 견딜 엄혹한 시련을 수십년이나 견디며 내”었다면서도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 것이 곧 다름아닌 애국”이라고 출산을 강조했다. 이 대회에서 김정은은 전과 달리 상수도, 에너지, 교통 등의 민생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평양의 “생활용수와 땀감문제, 대중교통운수와 승강기, 난방보장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지방 도시들의 생활용수문제를 비롯한 필수적인 생활상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겠다고 했다. 출산장려 차 학용품 지원 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여성들이 양육 현실에서 겪는 인프라 문제를 인정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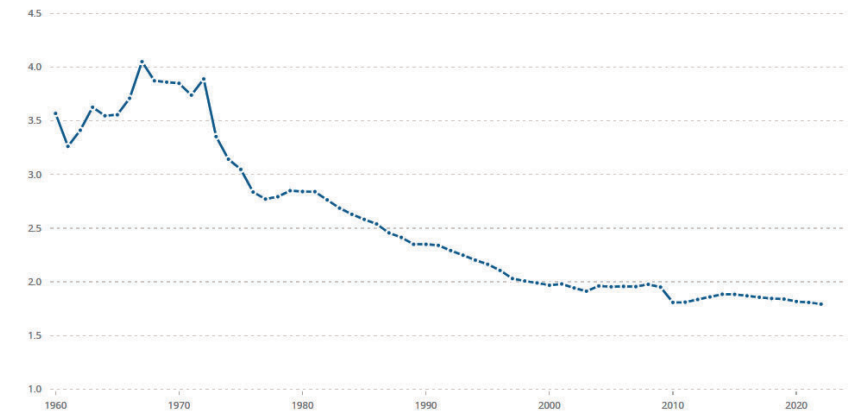
적은 처음이다.

물론, 이 약속이 이뤄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북한의 민생 인프라는 외부의 지원 없이는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공언이 나타날 만큼 여성들의 선택이 확고해졌다는 점이다. 지

난 30년 간 여성들은 생계유지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온몸으로 겪어왔고, 출산을 기피하는 지금의 20-30대 여성들은 그런 엄마의 삶을 목격하면서 동생 돌봄과 가사노동에 참여하며 장사를 도와왔던 이들도 있다. 그 결과,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인구 감소에 해당하는 2명 미만에 접어들었고 지속감소하며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² 그러므로 김정은의 솔직한 인정은, 그저 ‘뒤늦은 후회’일³ 뿐이다.

2. 너무도 당연한 출산 기피: 생계유지와 일상생활의 어려움

배급제 시절에도 북한당국이 주민의 생존권을 상당부분 방임했기에, 그 빈틈은 여성들이 채워나갔다. 오랜 기간 쌀 배급은 정량 미달이었고 부식물, 옷과 침구도 여성이 ‘재량껏’ 마련해야 했다.



〈World Bank의 북한 출산율 통계. 최근 20여년 간 2명 미만의 수치를 가리키고 있다 (출처=World Bank Open Data 홈페이지)〉

민생인프라도 부족하여 수도화가 되지 않은 지역도 많았다. 다만 이 시점까지는 중앙으로부터의 배급과 인프라 가동에 여성들의 노력을 더하면 그럭저럭 생존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극소수 특수계층을 제외하고는 배급이 아예 사라졌고 도시와 농촌을 가릴 것 없이 물, 연료 등 생존을 위한 기초적 인프라 공급조차 완전히 중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결근은 강력처벌 대상이기에, 여성이 가족의 생계유지 책임과 중단된 민생 인프라를 대신하여 물자 조달의 책임을 오롯이 전가받게 되었다.

(1) 생계유지 활동과 어려움

장사는 쉬운 일이 아니다. 시장에서 매대를 운영하는 여성들은 매일 일정한 장세와 각종 비정기적 상납금, 품목과 위치에 따른 별도의 자릿세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대도시 큰 시장을 제외하고, 보통의 시장에서는 매대를 갖고 있어도 수익창출이 쉽지 않다. 수입도 내수 생산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인들끼리 대동소이한 물건을 판다. 게다가 일반 주민들의 구매여력이 아직 크지 않으므

1 이 글은 필자의 다음 연구들을 일부 선별하여 재배치하고 정리한 것이다. 박민주, 『북한 주민의 모빌리티와 이동·통치·젠더』, 『현대북한연구』 27권 1호, 2024, pp. 258-305; 박민주, 『북한 여성의 물/위생 지식과 일상적 기술실천: 북한 여성의 과학기술적 행위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과학기술학연구』 21권 2호, 2021, pp. 231-267.

2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ZGA283&conn_path=I3.

3 2018년 평양 남북합동공연에서 최진희의 ‘뒤늦은 후회’가 연주되었는데, 김정일의 애창곡으로 북한 측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아무도 없으니까요”라는 노래 가사가 북한의 상황과 절묘하게 맞는다.



〈손수레를 끄는 북한 여성〉

로 매대를 갖고 있어도 여성들이 부업을 해야만 생계가 유지된다. 또한 대다수 시장은 냉난방이 안되고, 상인들에게 허락된 공간은 매우 좁아 간이의자에 몇 시간씩 쭈그려 앉아 물건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여러 질병을 얻곤 한다.

매대를 구매할 형편이 안되면 직접 물건을 갖고 다니며 ‘메뚜기 장사’를 한다. 여성들은 밤낮없이 수십 kg의 물건들을 몸에 이고 지며 여러 지역을 다닌다. 거주지 특산품을 타지역에 가서 판매하고 그 지역 특산물을 사다가 거주지에서 마진을 붙여 판매한다. 판매금지 물품이 많아 밤에 몰래 산을 타고 무거운 짐을 나르기도 한다. 공임을 받고 남의 집에 물을 운반해주거나 가축을 직접 끌며 이동시키기도 한다. 이처럼 자기 신체를 적극 움직여야만 작은 소득이나마 벌 수 있으므로, 많은 여성이 아픔을 참고 진통제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한다.

장사가 힘든 여성들은 수출품을 생산하는 경공업 공장에서 노동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공장들은 하루 15시간 이상의 거센 노동강도를 요구하며 노동 환경도 열악하다. 그나마 임금을 주는 몇 안되는 공장이지만, 쌀 20kg 정도가 전부다. 이조차 자원이나 인맥 없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들

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굶기지 않는 유일한 생계유지 방법이다. 이처럼 매일 자기 몸을 쓰지 않으면 전체 가족의 하루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도치 않은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생계부양 활동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게 된다. 한 생명의 임신과 출산이 이미 태어나 있는 다른 가족구성원의 생존을 의도치 않게 저해하는 상황인 것이다.

(2) 민생 인프라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고난의 행군”은 단순히 식량배급의 붕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이거나 공급되었던 상수도, 전력, 보건 의료, 교통운송 등의 민생인프라의 중단을 포함한다. 평양 중심부 등의 극히 일부 지역에는 전력공급과 상수도 공급이 이뤄지고 있고 여력이 있으면 돈을 주고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주민 가구에서는 생존에 필요한 식량조차 겨우 충당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물과 연료는 자연에서 직접 조달한다.

특히 물 조달은 여성들의 일상을 매우 힘들게 하는 사안이다. 북한은 아프리카 국가보다 훨씬 물 문제가 심각한 물부족 국가다. 상수도화가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많다. 전력부족과 유지보수 문제로 수도가 있어도 물이 나오지 않거나 정제되지 않은 오염수가 나오는 경우가 잦다. UNICEF가 북한당국과 함께 조사한 결과, 북한에서 생활용수를 길어오는 사람은 각 가구 내의 주로 15세 이상 여성(65.2%)이다.⁴ 북한에서 물을 쓰는 노

4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 and UNICEF (2018),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Report,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CEF.

동이 오랜 기간 ‘여성화’ 된 가사/돌봄노동과 연관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물이 넘치거나 쏟아지기 쉽고 필요량이 큰 데 무겁기까지 해서 운반이 어렵다는 점이다. 설상가상, 북한에서는 ‘물지게’ 지는 것을 ‘여성스럽지 못하다’고 여기는 인식 탓에, 여성들은 물지게 등의 운반도구보다 신체에 무리가 큰 방식(물동이를 이거나 손으로 드는)을 취한다.

영유아를 양육하는 여성은 더 큰 고충을 겪는다. 아기 목욕물은 취수도 힘들지만 연료값이 비싸 수온 조절도 어렵다. 그래서 낮에 햇빛을 따라가며 물그릇을 옮겨 미온수 상태를 만들었다는 증언도 있다. 오염된 식수로 아기가 물배탈이 나면 마땅한 약을 구하기도, 의사를 찾아가기도 힘들다. 때문에 여성들은 양육을 경험한 선배 여성에게 “남알(곡식) 물을 끓여 먹이라”는 민속지식을 배워가며 가까스로 자녀를 양육해냈다. 이처럼 씻고 먹는 기초적 일상조차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출산에 대한 의지가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3. 취약해진 결혼과 동거: 남녀관계에 대한 태도와 실천 변화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내려는 여성들의 실천은 출산, 결혼을 넘어서 남성 파트너와의 관계 변화까지 촉발해냈다. 이전의 배급제 시절, 여성들의 의식주는 모두 남편(세대주)에 의해 결정되었다. 남편 이름으로 남편 직장 근처에 집을 배정받고, 남편 이름으로 나온 배급을 통해 지역 내에서 삶을 영위했다. 그러나 시장화 이후 배급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여성들은 장사를 위해 주거지 바

깎으로 나가야만 했다. 이런 환경 변화는 남녀간의 경험 격차와 인지 격차를 촉발했는데, 자의 반타의 반으로 장사를 위한 이동이 잦아지면서, 여성들은 직장에 출근하여 지정된 시공간에서 일상을 보내야 하는 남성보다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 경험을 하고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폭력성과 가부장성이 심한 남편을 떠나 새로운 파트너를 찾거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위험한 장사 여정에서 안전을 모색하고자 부부가 아닌 여성과 남성이 짝을 이뤄 움직이는 이른바 ‘8.3부부’가 등장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술독에 빠져 “돈 번다고 유세하느냐”며 폭력과 폭언을 가하기 일췌인 남편이 아니라 친절하고 마음이 잘 맞는 8.3 남편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도 한다. 제도로서의 결혼은 취약해졌지만, 일상에서는 두 사람의 결합이라는 본질로서의 결혼, 그리고 실리적 결혼의 측면이 부상하고 있다.

이를 보고 자란 20~30대의 청년 여성들은 만혼과 동거에 대해 열린 태도를 취한다. 북한에서는 여성들이 대체로 늦어도 20대 중반 결혼을 하는데, 최근에는 20대 후반이 되어도 결혼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고 30대에도 미혼인 경우가 확인된다. 동거 커플 증가 역시 확인한 현상인데,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국책연구기관 조사결과,⁵ 그리고 북한당국의 각종 ‘계도’성 언설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여성들은 ‘혼인등록’을 하는 순간 인민반과 여맹에 편입되어 각종 헌납과 행사 및 건설현장에 동원된다. 또한 가족과 지인

5 박영자·이지순·이윤진·김란, 『북한 주민의 가정 생활: 국가의 기획과 국가로부터 독립』, 서울: 통일연구원, 2023, pp. 257~258, 360~361.

들에게 결혼을 공표하는 ‘결혼식’ 직후부터 며느리, 아내로서 과중한 의무에 시달리기 시작한다. 남성들 역시 동거에 부정적이지 않다. 동거 커플에게 방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집주인, 사례를 받고 이들의 ‘전입’을 눈감아주는 인민반장 역시 동거 확산의 적극적 행위자로 기여하고 있다.

동거에 대한 열린 태도와 별개로, 성별을 막론하고 북한 청년들이 바라는 배우자의 조건 역시 상당히 명확해지고 있다. 여성들은 장사에 여러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고위급 간부 혹은 재력이 있는 집안 남성을, 남성들은 최소한 여성이나 그 어머니가 매대를 갖고 있어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를 이상적 배우자로 생각한다. 이는 청년들이 앞선 세대보다 계산적이라서가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북한 사회에서 권력과 화폐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여성은 장사능력을, 남성은 권력을 활용하여 가족 공동체를 함께 운영하는 것이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여성들만 장사에 참여했던 시장화 초반에는 단순한 유통과 소매거래가 장사의 대부분이었으나,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권력이 시장에 개입하며 여성과 남성의 협력이 중요해졌다. 남성 간부의 석유, 운송수단, 이권 접근



〈평양 만수대예술극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한 부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민주평통 블로그 재인용)〉

성 등을 활용하고 여성이 장사의 전면에 나서는 식으로 대규모 도매와 장거리 유통이 이뤄지면서, 전보다 쉽게 더 큰 이익창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덧붙여, 청년 남성들은 아버지 세대보다 여성의 장사와 가사노동을 분담에 더 적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완전히 분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지만, 폭력성이나 가부장성에 대한 문제의식도 종종 발견된다. 또래 여성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남성들에게서도 젠더 혹은 결혼생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가 조금씩 포착되고 있다.

4. 불안계층(Precariat)으로서의 여성: 우리의 기도할 바

시장화 이후 30여 년간 여성들은 끊임없이 이동하며 가족 생계유지에 전력을 다해왔고,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생존을 위한 감각과 언어적·비언어적 능력을 익히기도 했다. 여성들의 그러한 역량은 “(북한에서)여자 말을 안 들으면 망한다”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다소 농담섞인 진담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여성의 지위 향상 혹은 안정화를 촉발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언급한 것처럼,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운송수단과 자원 배분 능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권력은 주로 당과 중앙기관의 고위급 남성 간부에 주어진다. 게다가 여성이 장사활동을 통해 얻는 다양한 능력은 긍정할만한 것이지만, 많은 경우 그 능력을 얻기까지의 과정은 거친 환경과 각종 사건사고로 점철되어 있다. 결국 여성들이 시

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고 또 그래야만 했던 까닭은 북한당국의 통치전략 상 ‘1등 공민’이 아니라 ‘1등 공민’인 남성의 크고 작은 재산을 담당하는 ‘후비대’였기 때문이다. 북한식 표현으로는, ‘발전(높은 지위에 올라서는 것)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었고 또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저출생과 만혼 현상이 명징하게 보여주듯, 여전히 여성은 불안계층으로 남아있다. 출산기피와 동거 확산은 여성들이 자기 지위의 불안함을 조금이나마 안정시켜보려는 노력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북한 여성의 삶과 실천의 맥락은 단순하지 않다. 감히 우리가 무엇이래 결론 내릴 수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외에 할 수 있거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력은 그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마음과 기도를 모으는 일인 것 같다.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한 기도제목은 그들의 심리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이 경감되도록 여러 상황이 개선되는 것이다. COVID-19 이후 주민 생활이 1990년대 중후반 상황에 필적할 정도로 어려워졌다는 소식이 종종 들려온다.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수출입이 재개되었지만 수년간 거래가 끊겼던 데다가 북한당국이 시장활동을 제한하고 여성들에게 직장으로 돌아가라고 강조하면서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배가되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여름에 발생한 심각한 수해와 잦은 재난은 여성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 자명하다. 의식주 생활과 약자 돌봄이 여성에게 전가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빠른 복구가 제때 이뤄져 전염병과 같은 2차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북

한당국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지금처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적극 수용하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중보할 필요가 있다.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는, 여러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여성을 불안계층으로 묶아매는 근본적 문제인 독재체제가 해소되도록 기도하면 좋겠다. 독재는 그 특성상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젠더, 연령, 장애여부, 학력, 지역, 정치적 성향 등의 무수히 많은 차별을 먹고 자랐다. 특히, 독재 정권일수록 극심한 성차별을 권력유지의 자양분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영원한 독재가 인류 역사에 없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북한 여성의 삶이 불안을 벗어나 평화롭고 자유로울 수 있기를 기도한다. 🙏

6 ‘불안정(precarious)’과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의 조합어이다. Guy Standing, *The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 (London&Newyork: Bloomsbury, 2014), p.11.

시장도입과 북한여성의 경제적 역할변화

정은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I. 상설시장 도입과 북한여성의 경제적 역할변화

현재 북한 경제는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행한 ‘상업개혁조치(2003.3.)’로 상설시장 운영을 합법화하여 계획경제와 시장이 공존하는 이중경제구조(Dual Economy System)를 유지하고 있다. 상설시장 도입 조치로 북한의 계획경제 하에는 소비재 시장으로서 지역별 종합시장과 생산재 시장으로서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수입물자교류시장이 개장되었다. 북한의 공식적 소비재시장인 종합시장에서는 2003년 6월부터 시장(장마당) 쌀 판매가 허용되었고, 농민시장에서는 매매할 수 없었던 공산품(제한품목 제외)도 매매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같은 시기에 공장·기업소 간 원자재 거래가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생산재시장인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이 개장되어 운영되고 있다. 북한의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70% 이상은 중국산이며, 북한 주민 70~80% 이상은 시장에 의존하

여 경제생활을 유지한다. 통일부가 올해 2월 6일에 공개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탈북민 6,351명이 알려진 북한의 실상』에서 응답자 70% 이상은 식량배급을 전혀 받지 못하여 시장을 통해 자체로 조달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자립생존 현장의 중심에 가계경제의 주축을 담당한 북한여성이 있다.

북한여성의 경제적 역할은 1990년대 중반 경제난으로 세대주인 남성 위주의 가계 경제생활 유지방식이 여성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그 변화가 부각되기 시작하여 2003년 상설시장이 도입된 이후 더욱 본격화되었다. 경제난 이후 근로소득 및 식량 등의 생활필수품 미공급 지속은 가계 구성원의 생존을 위협하였고, 이를 자립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대주에게 부양가족으로 귀속되었던 전업주부 여성은 물론, 직업에 종사하였던 여성까지도 가족 구성원의 경제생활 보장을 위해 자립생존현장에 뛰어들게 하였다. 2003년 상설시장 도입이 공식화된 이후 북한여성의 이러한 경제적 역할은 시장 공간의 활용과 함께 더욱 변화를 추구하게 된다.

II. 북한여성의 경제적 역할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

상설시장 도입 이후 북한여성의 경제적 역할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영향요인은 가족관계, 조직관계, 개인역량 등이다. 무엇보다 가족관계에서 가족부양, 자녀교육의 다중부담을 전담해야 하는 북한여성의 경제적 역할은 시장에서의 자가소득 취득이 합법화되면서 더 큰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정치조직 구성원으로서의 매주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조직생활총화 등에 불참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국가배급제도에만 의존하던 생활방식에서 자립생존을 통한 자가소득 취득에 집중하는 관습을 체화시키게 된다. 이에 이어서 개인·가족·돈 중심의 가치관 변화를 촉진하여 개인역량을 제고시키고 궁극적으로 북한여성의 경제적 역할을 더욱 변화시키는 유인을 제공하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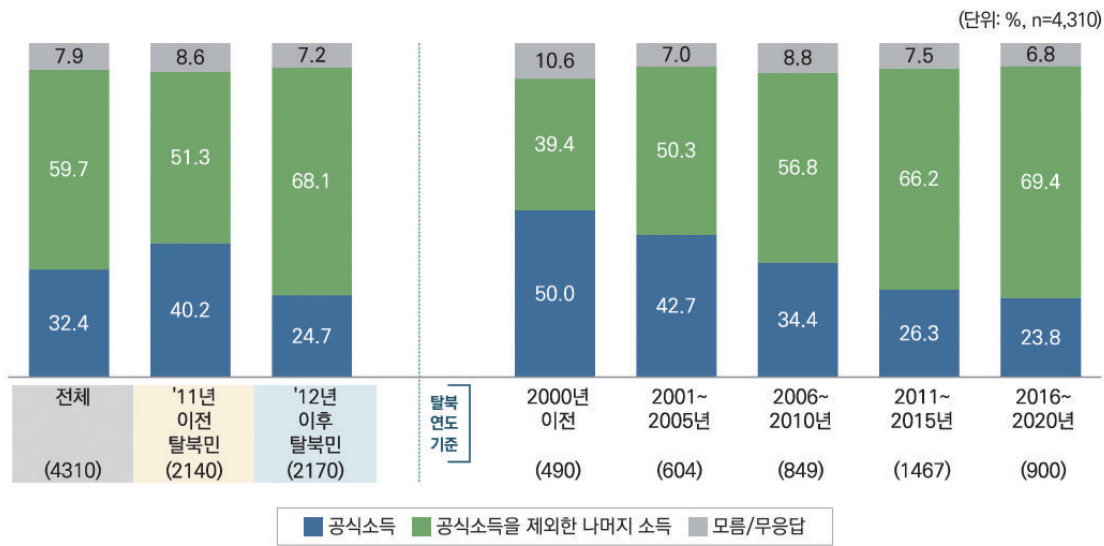
1. 가족관계 요인

가족관계는 1990년대 중반 경제난으로 가정경제로 회귀한 북한여성들이 2003년 시장 운영이 공식화된 이후 세대주인 가장의 역할을 대신하여 가계경제 자립생존 주역으로 거듭난 것과 연관된다. 가계경제에서 북한여성의 경제적 역할은 1990년대 중반 경제난(일명 ‘고난의 행군’)시기 자생적 암시장 확산과 더불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여성의 자가소득 취득 및 부의 축적은 시장을 통해 더욱 확산되는 추세였으며 이 과정에 북한여성 대부분의 가계소득은 근로소득을 통해서보다 비공식소득을 통해 더 많이 축적되었다.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탈북민 6,351

명이 알려진 북한의 실상』(통일부, 2024) 내용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비공식 소득 비중은 2000년대 초반 상설시장 도입 이후 약 68%까지 증가하여, 공식소득인 근로소득보다 몇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북한여성이 있고, 이들의 경제활동은 사경제활동을 통한 비공식소득의 주를 이룬다.

북한여성의 가사노동부담, 가계경제 자립부담, 자녀양육부담, 사회발전 참여 부담이 다중으로 겹쳐있는 북한의 현실은 경제난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북한에서의 가정은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동시에 최저생산단위이다. 특히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실현의 학습장이기도 하다. 사회주의대가정을 이루는 하나의 세포로서 북한의 가정은 ‘가정혁명화’를 중시하며 최고지도자 중심의 일심단결에 가족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북한의 가정에서 여성은 사회적 책무와 자애로운 어머니상 모두를 요구받는다. ‘역사의 한쪽 수레바퀴를 담당할 사회발전의 주역으로 묘사되는 북한 여성은 지도자에 대한 충실성, 생산자로서의 혁명성, 노동계급성을 발휘해야 하며 가정에서는 자애로운 어머니로서 자녀양육을 담당해야 한다.

북한여성의 가정에서의 지위는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1946.7.30.)이 제시된 이후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보험 및 교육권리 보장 등의 혜택이 부과되도록 불구하고 가부장적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면이 대부분이다. 특히 1990년 ‘가족법’이 제시되면서 전통적 가족제도 유산의 답습으로 양성평등 이념에서 일부 이탈한 부분이 있어 법률적 규정만으로 여성의 실질적 지위를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시기별 가족 내 주 소득자의 주된 소득원, 최근으로 갈수록 비공식 소득의 비중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출처=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통일부, 2024))〉

1990년대 중반 식량공급이 중단되고 비공식경제활동으로 생존을 해야 했던 시기 북한 여성들은 가계경제유지 부담을 현실적으로 안게 되었고 그 결과 가족관계에서 남편의 세대주 역할을 대신하여 가계경제를 운영해야 했다. 시장도입이 공식화된 이후 북한여성의 역할은 순수 가계경제유지에 국한되지 않고 시장 활동을 통해 외부사조를 접촉하고 개인 수준에 부를 축적하면서 자아존중감 향상에 투자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 조직과의 관계에서도 조직에 순응하지 않고 일탈을 반복하고 있으며, 뇌물을 통해 조직생활을 대체하는 경향들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일탈은 북한여성의 역할변화에서 체제순응적 관점을 자아존중감 성취를 통한 개인역량 강화로 대체시키고 있다.

2 조직관계 요인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전 국가공급이 비교적 정상화되었던 시기 북한여성의 정치조직생활

참여는 정례화된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월 2회 진행되는 강연회(주요 수요일에 진행된다고 하여 수요강연회), 매주 진행되는 정치사상학습(토요학습), 선전선동활동 참여를 통해 충실성을 검증받아 표창, 승진, 당에 입당하려는 여성들의 참여가 돋보였다. 특히 매주 1회 진행되는 정치조직생활총화에 참여하여 자기비판과 호상(상호)비판을 강행하는 등 조직성원으로서의 규약을 준수 및 조직생활 낙오자에 대한 사상투쟁 회의에서 날선 비판과 비난을 신랄하게 하기도 하였다. 대중동원운동, 선거운동, 지도자 및 체제 선전활동, 모내기전투·가을걷이전투 등의 사회노력동원, 충성의 외화벌이, 퇴비생산 등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였다.

경제난 이전 북한여성의 조직생활 참여는 지도자에 대한 충실성 검증 및 조직생활평정을 잘 받기 위한 스스로의 충성표현이 비교적 높이 나타나는 등 의무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단순 불평불만을 표출하는 일부 여성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위에서 전술한바와 같이 조직생활에 성실히 임하였다. 또한 정치조직책임자(당비서, 여성동맹위원장 등)의 조직생활 참여에 대한 통제 및 규제가 중앙집권적으로 강행되어 조직생활 불참자에 대한 정치조직적·법적 이중 징계가 이루어졌으며, 이로부터 수령제일주의·집단주의 원칙을 준수할 수밖에 없었던 조직생활 환경이 동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제난 이후 북한여성의 조직관계는 자립적 생존방식 변화, 외부사조 유입에 의한 문화행태변화를 동반한 가치관 변화와 함께 형식적인 조직생활 참여 및 기피 현상 보편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통제해야 할 조직책임자들까지 사회적 일탈 증가에 동조하고 있으며 통제가 어느 정도 완화된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하여 생계유지를 위한 뇌물수수, 책임 소홀, 개인 이익을 중시하는 도덕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3. 개인역량 요인

북한여성의 개인역량은 사실상 정치사회화를 위한 사상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체제 중심으로 고착된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북한여성의 가치관은 개인 중심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즉, 북한체제가 사상교육 및 조직생활 통제를 통해 주입시킨 3관(혁명적 수령관·혁명적 조직관·혁명적 인생관), 수령·당·대중의 통일체를 강조한 3위1체 일심단결 가치관은 개인·가족·돈 중심의 개인주의·배금주의·물질지상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는 곧 정치조직생활 일탈기제로 작용하여 수령제일주의 가치관, 체제신뢰, 집단주의 원칙에서 이탈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과정에 체제 의존보다 자기 자신의 삶을 중시하는 자아존중감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의 결기대회 모습 (사진=노동신문)〉

이 더욱 향상되고 있으며, 외부문물을 선호하며 외부세계를 모방하고 동경하는 현상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정에서 가계경제 주역으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살았던 북한여성들은 과거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적극적으로 고취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는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을 특별히 강조하며 사상이반을 차단하기 위해 정치사상통제를 강화하고 시범적으로 외부문물을 접촉하였거나 유통시킨 현상, 사상의식 변화 및 체제 이탈 주민에 대한 공개처형을 시행하여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 사상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김일성·김정일·김정은 교시 및 말씀,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원칙’에 준한 정치생활총화 통제 강화하며 자녀교육에서도 여성들이 사상의식 함양에 중점을 두도록 사회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지도자 중심의 일심단결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10대 원칙에 기초한 정치생활총화가 형식상 진행되고 자신의 잘못을 대중 앞에서 공개 비판하는 것을 서신·전화로 대체, 조직생활평정서를 뇌물을 주고 위조하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다. 또한 외부사조 유입에 의한 주변

북한 여성의 주체성 쟁취와 젠더정치¹

최 설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다중적인 억압 속에 주변화 된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에 문제를 제기한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Spivak)의 책 제목이다. 계급적, 정치적, 성적 억압으로 목소리를 박탈당한 하위 계층을 서발턴이라고 하는데, 스피박이 여기에 주목한 이유는 이들이 진정 말할 수 없는 것은 표현의 부족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어려운 사회적 구조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식은 3대 세습 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신분제도와 가부장제 문화가 만들어 낸 성(性)에 갇혀 목소리를 낼 수 없거나 아주 미약했던 북한 여성의 주체성 탐색에 가능해 보인다. 즉, 국가 담론으로 성 위계가 구성되어 ‘여성다움’ 울타리에 갇혀야 했던 북한 여성의 삶의 기반을 서발턴의 시선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게 필자의 주장이다.

물론 북한은 건국 초기 여성의 ‘사회화’를 개선하기 위해 남녀평등권 법령을 발표(1946.7.30.)하고, 모성 관련 정책을 실시하였다. 국영 탁아소가 설치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여성의 노동력을 사회로 복귀하여 혈연관계보다 사회주의 대가정 이념 하에 여성을 종속시켰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남성은 공적 부문에서, 여성은 사적 부문에서 성별 역할을 분업화함으로써 남성 중심의 제도적 근간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여성들은 남편을 공대하고 내세우는 동시에 자식을 많이 낳아 나라에 바치는 등 현모양처 역할을 병행해 왔다. 주체적인 삶보다 개체적인 삶에 순종한 것인데, 이러한 사례는 북한의 문학과 영화 등에서 생생하게 드러난다.

“하 참, 그 집이 난사는 난사야. 춘서를 두구 뒷말들이 많아. 거 옛날부터 그릇하구 네편네는 밖으로 내돌리지 말랬다구, 네편네 기승이라는 건 제 때제때 꺾어놔야지 가만 놔두면 하늘 높은 줄 모

1 이 글은 필자의 미출간 도서 자문화기술지의 일부를 인용한 것입니다.


세계(한국, 중국, 미국 등)동경의식 확산, 외부 사회문화 풍조가 북한 내부에 유행되어 한국 가요·미국 팝송·디스코 모방 등 정치조직생활 규칙과는 위반되는 외부문물 선호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통제하는 자인 조직책임자와 통제받는 자인 조직구성원 간 ‘생존’을 목적으로 한 협력·결탁에 의해 조직생활 기피 및 불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자립적으로 가게 경제생활 유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고 문화행태 변화를 추구하는 등 외부문물 선호에 의한 외부세계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북한여성의 경우 자기계발 욕구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들에 편입되는 추세다. 개인역량 제고를 위한 북한여성의 노력은 축적한 부를 활용하여 공장기업소 경영에 참여하는가 하면, 가부장적 생활 관습에서 탈피하여 스스로의 자기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지위를 찾기 위해 자기계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Ⅲ. 북한여성의 경제적 역할변화의 한계와 향후 과제

북한여성은 ‘역사의 한쪽 수레바퀴’를 담당한 사회의 주역으로 남성과 함께 사회발전의 주요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북한여성의 경제적 역할변화는 경제난으로 생산현장에 종사하던 북한여성의 가정으로 회귀가 현실화되고 남편에게 부양으로 있던 가정주부들까지 가계경제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북한여성의 역할변화는 가정에서는 가계경제유지 주역으로서의 지위 상승으로, 사회전역에서는 자립생존 현장인 시장 확산을 추동하고 사회변화를

촉진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여성의 변화는 북한 정권의 체제유지를 위한 사상교육 강화, 조직생활 통제 강화, 특별법 제정(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 평양문화어보호법)에 의한 외부정보 접촉 제한 등의 한계에 직면하여 바람직한 변화로 승화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북한 여성들이 사회 변화의 주역이 되어 가정의 변화, 신세대의 변화, 사회 불공정한 시스템의 개혁을 이끌어내고 복음 통일 실현의 선도자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기도와 실천을 행해야 할 것이다. 

르구 자꾸 치솟는 법이지.” -영화문학 <요람> 중
에서-

“...함순화는 이 첫 집에서 8년 째 살아오면서 애
오라지 남편이 잘되기를 바라며 그 한데 모든 정
성을 다 기울려왔다. 그는 남편에게 구멍탄(연탄)
한번 짝게 하지 않았으며 지어는 벽이 떨어지고
부뚜막이 내려앉아도 다 제 손으로 고쳐놓기에
애썼다. 남편이 집 걱정을 일체 모르고 생산에만
전념하게 하느라 모든 것을 다해왔다. 그래서인
지 남편은 광구에서는 물론 광산 적으로도 해마
다 제일 먼저 계획을 해내는 혁신자가 되었다. 그
는 남편에게 아무런 불만도 없었다... 그는 도라지
꽃을 그린 하얀 사기 단지를 행주수건으로 싸들
고 들어왔다. 그 속에는 곶²을 한 암탉이 새 노란
기름 속에 두 다리를 바싹 처든 채 몸을 꼭 잡고
고 있었다 -장편소설 <백금산> 중에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필자도 역시 북한에
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후 부엌마루 밑에서 토
끼를 길러 매달 남편에게 토끼곰(보양식)을 대접
하던 기억이 난다. ‘남편의 위가 아내의 위’라고 생
각했으므로 남편을 내세우는 아내의 역할을 사명
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성성이 형성된 것은 국가 식량배급제³
가 주요 요인의 하나이다. 식량배급제는 주민 이동
과 일상생활 전부를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가정의 세대주 남편을 통하여 아내와 자식에게 식



<장마당에서 북한 여성들이 운동화 좌판을 벌여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월간중앙)>

량이 공급되니, 아내는 남편을 가정보다 국가에 충
성하도록 섬기는 구조에 놓이게 된다. 또 수령과 당
에 충성해야 하고 조직생활과 각종 사회동원에 참
여하는 등 다중적인 역할이 여성의 삶이었다.

그런데 북한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
작했다. 동기와 경로는 지면상 생략하고 간단히
정리한다면, 식량배급제가 무너지면서 여성의 탈
가부장제가 시작된 것이다. 특히 국가에서 남성에게
가족의 식량을 배급하지 못하면서 기존과 동일
하게 국영공장 출근을 강제한 것이 역효과로 나
타났다. 가정의 세대주로 호명되어 왔던 남편의
역할이 무의미해지고 아내가 직접 장마당 장사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면서 여성의 영역은 가
정에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북한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여성의 울타리를 해체시키며 주체성을 강화한 계
기라 하겠다.

1990년대 태동한 시장은 2000년대 양적으로
발달하고, 2010년대 질적으로 진전하며 수많은
여성들을 경제주체로 부각시켰다. 수령 중심 사회
가 시장 중심으로 이동한 것인데, 시장의 주체로
서 여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북한 사회 기반이 흔들리게 된 것에는 여성의 저

력을 무시할 수 없다.

독재체제에서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냐고 묻는
다면 원리는 단순하다. 경제는 정치와 밀접하게
연동되는데, 목소리를 낼 수 없던 북한 여성들이
‘식량 배급권’을 갖게 되면서 아래로부터 사회 기
반 붕괴는 불가피하였다. ‘양정은 정치’로 정의되
고 있는 북한 사회 특성상 가족의 식량을 해결하
는 여성들이 국가양정의 힘을 갖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체제기반을 우려한 북한이 2006년부터 장사하
는 여성의 연령 기준을 40대 이상으로 정한데 이
어 2009년 화폐교환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는 장
마당 여성들을 국가통제권에 다시 장악하려는 일
환이었다. 하지만 국가가 공급 능력이 부족하다보
디 시장통제 정책은 부작용을 유발했다. 가정의
경제를 책임진 여성에게 순종을 강조하니 사회 균
열이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난 것이다.

한 여교사의 자살 항의

시장이 발달한 도시일수록 사회 균열은 한층 더
심한데, 이러한 현상은 공권력에 의한 여성의 통
제가 강화될수록 반작용을 일으키며 부각되고 있
다. 일부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한 여성의 자
살 항의로 최고지도자의 정책까지 철회된 건 눈
여겨 봐야 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평남 순천에서 있었던 실
화를 사례로 보자.

장마당 여성의 경제활동은 이동을 전제한다. 자
전거가 필수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는
여성들을 단속하고 통제하라는 최고지도자(김정

일)의 방침이 내려왔다. 두 다리 벌리고 페달을 밟
으며 거리를 횡단하는 여성의 모습은 ‘조선여성’
의 고상한 품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세포로
규정되고 있는 가정의 균열이 사회적 문제로 부
각된 것인데, 당국은 이 문제를 자전거를 타고 이
동하며 장사하는 여성성의 변화를 일차적 근원으로
보았다고 한다. 자전거에 앉아 장기간 페달을
돌리는 여성은 예민한 생식기에 굳은살이 생기고,
그러면 아내가 부부관계에 흥미를 못 느껴 잠자리
를 원하는 남편을 거부해 부부갈등이 시작된 것이
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이 장기간 쌓이면 이혼
과 갈등을 부추긴다고. 이 말은 필자가 사법기관
간부에게 직접 들었다.

세상에 이보다 코미디한 정책이 또 어디 있을
까?!

1990년대 중반 이전만 하여도 북한에서 자전
거는 남자의 소유였다. 경제난이 시작되며 도시
여성들이 먼저 자전거를 타고 장사를 했는데, 필
자가 당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달리면 남자의
놀림이 따라오던 기억이 난다. 남자의 소유였던
자전거의 상징이 여성에게 이전되니 가부장제 문
화로 굳어진 관습, 남성의 위상을 위협하는 것으
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들어 농촌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
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장사하는 것이 보
편화되자 사회적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재산 1호
였던 자전거가 가정에 한 대밖에 없다면 누구의
차지일까. 남편이 설사 당원이라 하여도 자전거
이용권을 아내에게 양보한다. 왜? 장사하는 아내
가 자전거를 타고 빨리 움직여야 가족이 먹고 살
고 남편의 당비도 벌 수 있으니까.

가정의 남편도, 길거리 남자들도 이제는 자전거

2 삼계탕처럼 닭이나 오리, 토끼의 배를 가르고 약초와 마늘, 찹쌀 등을 넣고 단지에 넣은 후 가마 솥에 찐 보양식을 ‘곰’이라고 한다.

3 북한은 식량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의 생산과 유통, 분배과정까지 모두 개입하여 가격과 소비를 통제하면서 생산 기업에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국가의 통제력은 주민들의 소비생활 구조를 장악하고 있다.

가 장사하는 여성의 이동수단이라고 당연시하는데, 공권력이 통제하면 어쩌란 말인가. 동시에 여성은 바지를 입지 말고 치마를 입고 길거리로 다니도록 통제되었다.

“여자는 왜 자전거를 타면 안 되는 데...여자는 사람이 아닌 거? 남자만 자전거를 타야 한다는 법이 있나?”

“치마저고리(한복) 입고 장사 하라는 건가...세상에 별꼴 다 보겠네...”

여성들은 분분했다. 그러나 방법은 없었다. 도로 군데군데 안전부(경찰) 순찰대(경찰 업무 보조)가 깔려 있었는데, 할 수 없이 여성들은 단속을 피해 새벽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물건을 나르며 장사를 하였다. 그러자 자전거 단속 시간이 새벽으로 앞당겨지고, 도로와 오솔길이 접점을 이루는 다리목까지 자전거 단속대가 늘어섰다.

북한에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각색된 5대극의 하나인 ‘피바다’가 있다. 이 가극 내용에 조선 사람들을 무작정 세워놓고 검문하고 단속하며 괴롭히던 일본 순경이 나온다. 딱 그 모습 그대로였다. 더 웃기는 것은 자전거를 타는 여성들에 대한 단속이 지속되자 희한한 직업이 생겨났다. 성인 남자는 미성년 남자인 거리에 서 있다가 자전거를 탄 여성이 나타나면, 그 여성의 자전거를 단속 구간만큼 끌어다 주고 돈을 받는 것이다. 여성을 단속하는 당국으로 하여 남자를 위한 노동시장이 생겨난 셈이다. 단속 구간 자전거를 끌어주는 남자를 바싹 따라가지 못하면, 자전거를 타고 달아나는 사건도 있었다.

‘안 되겠다. 담배 한 갑 뇌물로 바치는 게 낫겠다.’

여성들은 도로 구간마다 맞다드는 순찰대에 담

배를 주면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였다. 자전거 단속은 점차 뇌물 수단으로 변화하였다. 그러자 사법기관은 자전거를 타다가 단속되면 벌금이 아니라 자전거 회수에 들어갔다. 자전거를 찾으려면 더 큰 뇌물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제는 장마당 여성들을 분노케 하였다.

어느 날 아침, 30대의 여교사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단속되었다. 그녀는 농촌에서 옥수수 국수를 넘겨받아 시내 시장에 넘겨주며 살고 있는 현직 교사였다. 50킬로 넘는 국수를 운반하려면 자전거가 필수인데, 그 교사는 동네 사람의 자전거를 빌려 장사하고 있었다. 단속된 장소는 다리 입구였다. 순천에서 리수북화학공업대학을 지나 종합시장으로 들어가려면 대동강 위에 건설된 가리섬 다리를 건너야 한다. 안전원과 순찰대가 다리 입구에서 자전거를 타는 여성들을 단속하던 중 여교사도 단속된 것이다. 회수된 자전거가 30대가 되면 트럭에 실어 안전부로 운송된다.

여교사의 자전거도 안전부 트럭에 실렸다. 그녀가 사정했다.

“빌린 자전거예요. 회수당하면 빚더미에 앉는단 말이에요.”

여교사의 자전거는 일본제 중고 자전거였는데, 시장가격은 5만원 정도였다. 교사월급(평균 3천원) 2년 분 가치였다.

교사가 오죽하면 국수장사 하겠냐고, 다시는 자전거를 타지 않겠다고 사정을 해봐도 ‘올빠시’(일본 말로 땅벌) 안전원과 순찰대는 마이동풍이었다. 아무리 사정해도 소용이 없었다. 화가 난 여교사는 다리 한 가운데 우뚝 섰다. 자전거를 주지 않으면 죽겠다는데도 단속대는 반응하지 않았다. 결국 여교사는 대동강에 그대로 뛰어 들었다.



70미터 높이 다리 위에서 뛰어 내린 것은 죽음을 각오한 자살 행위였다. 끝내 여교사는 사체로 발견됐다.

그의 자살은 장마당 여성을 억압하고 단속하는 당국의 행태에 실천으로 항의한 사례 중 하나였다. 그러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던 장마당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목소리는 길거리 잡풀마냥 무섭게 엉키면서 하나로 합쳐졌다. 집에서 거리에서도, 시장에서도 자전거를 회수한 당국의 행태에 항의하여 자살한 여교사에 대하여 말을 하면서 여론은 들끓었다.

당시 이 사건은 최고지도자에게 보고되었다고 한다. 며칠 후 자전거를 타는 여성에 대한 사법당국의 단속이 사라졌다. 최고지도자의 방침이 철회된 것이다. 독재체제에서 이례적인 일이었다.

“여교사의 동상을 세워주면 좋겠네. 다른 게 영웅인가. 여자들을 살게 해준 사람이 영웅이지...”

장마당 여성들은 누구나 말했다. 북한 전역에 김부자 동상이 도처에 있는데, 깨어난 여성들의 목소리가 드디어 수령 신경화를 환기시키며 동상의 가치를 논의하는 것이었다.

북한 여성의 주체성, 그리고 젠더정치

김정은 집권 이후 국가담론이 달라지고 있다. ‘여성은 꽃이라네’(1991) 가요 주제가 ‘우리 집 사람’(2010)으로 바뀌는 등 문화적 콘텐츠가 변화된 것이 대표적이다.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어머니 날’도 제정(2012.11.16.)되었다. 김정은 정부의 젠더정치가 변화한 것이다. 물론 사회주의 여성의 역할을 부여하고 노동력을 동원하는 기존 통치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지식경제시대’에 전문직 여성의 사회 진출과 권력 진출을 장려하는 등 공식 및 비공식 부문에서 여성의 사회화가 높아지고 있다.

관행을 넘고 있는 장마당 여성의 주체성 쟁취가 불러온 결과가 아닐까. 수동적인 여성에서 능동적인 여성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과 희생을 동반하고 있지만, 북한 사회 진전을 불러오고 있다. 향후 북한의 젠더정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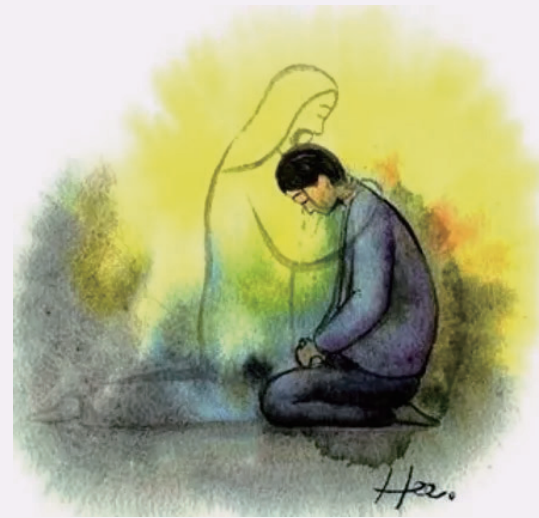
이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장마당 여성이라면...👁

탈북민 수기 : 손이슬 자매

제 6화

부모님의 죽음, 오빠와의 연락, 중국의 남편과의 관계 정리... 한국에 온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모든 일을 겪었다. 그렇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픔을 달랠 겨를도 없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견뎌내야 했다. 당시 나는 한 회사에 취직했는데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 생소한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도 문제였지만 워낙 큰일들이 연달아 터지니 마음을 추스르기 힘들었다.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할 시간도 없이 어떻게든 나가서 돈을 벌고 어린 딸아이 키우기에 바빴다. 그 당시 심정적으로 얼마나 막다른 데까지 몰렸었는지 일을 하다가도 화장실에 가서 울기 일쑤였고 아이와 함께 만화를 보다가도 눈물이 터지곤 했다. 당시 우리 집은 19층에 있었는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뛰어 내려 자살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몇 번이고 들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죽고 싶은 너의 맘은 알지만 너에게는 딸이 있지 않느냐” 하는 감동을 주셨다. 그렇게 주님은 나를 살려주셨다.

삶의 고난은 나를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었다. 답답하고 희망 없는 상황 속에서 내 삶을 지탱해준 것은 신앙이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었다. 주일에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꼭 막힌 마음에 숨통이 트이는 것이 느껴졌다. 그 예배를 통해 일주일을 버틸 수 있었다. 이제는 주일 예배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매일 새벽예배를 다니기 시작했다. 집에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으니 새벽에 아이를 깨워서 데리고 새벽예배를 드렸다. 새벽예배 참석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답답함을 호소하는 나의 눈을 열어주셨다. 여느 날처럼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기도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 나의 기도는 어느덧 내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로 바뀌었다. “주님, 저는 사람 이용하려고 했고, 사기꾼입니다. 이 죄를 어쩔합니다... 어쩔니까...” 하며 회개하는데 그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보냈다” 하는 말씀의 큰 감동



이 밀려들어왔다. ‘그러네요 주님,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나를 살게 하셨네요.’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 말씀이 더욱 속속 귀에 박혔다. 주님은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쁨과 감사를 내 마음에 부어주셨다.

기쁨과 감사로 내 삶이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다. 예배 참석 뿐 아니라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교회에서 진행되는 단계별 성경공부에도 참여했다. 속제도 꼬박꼬박 하고 암송도 꾸준히 하였다. 그때의 훈련을 통해 배운 말씀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곁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격려해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과거를 떠나보내고 현재를 살아내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하다. 나 스스로에게는 그런 힘이 나올 수 없었다.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점차 회복되어졌다는 표현 말고는 그 시절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게다가 아이도 교회에 잘 적응해주었다. 주일에 교회가자면 싫어하는 아이도

많은데 아이가 교회 가기를 좋아하고 더 나아가 진짜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었다. 아이에게 신앙을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했다.

조금씩 안정을 찾으면서 이제는 사건과 환경에 밀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사회복지사 공부였다. 온라인으로 사회복지를 공부하며 낮에는 회사에서 일을 했다. 퇴근해서 아이를 재우고 밤늦게 졸면서 공부했다.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회사 생활과의 병행이 쉽지 않았다. 아이가 있으니 야간으로 학교를 다니는 것이 불가능했고, 또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1개월간 실습을 해야 했다. 고민 끝에 나는 큰 결심을 하고 회사를 퇴직하고 공부와 실습에 매진하였다.

회사를 그만 두고 공부를 하면서 어쩌다보니 소개팅도 종종 나가게 되었다. 원해서라기보다는 탈북자 지인이 남남북녀 결혼정보회사를 하고 있어서 틈만 나면 소개팅에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연애할 상태가 아니었다. 너무나 많은 소개팅 부탁에 질려 머리도 짧게 자르고 이제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할 때에 교회 전도사님의 지인을 통해 신학교에 다니던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았다. 처음에 그를 만나고 느낀 첫인상은 어려운 인생역정을 거쳐 오며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나와는 자라온 환경이 완전 다르고 심지어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긴 사람이었다. 당시 나는 상대방을 만나서 오랜 기간 알아가고 연애하는 방식의 교제는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만나서 이 사람이다 싶으면 결혼

을 할 상대를 만나야했다. 그래서 그를 만났을 때에도 스스로에게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도 되는 사람인가?”하고 질문했다. 솔직히 내 마음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질 않았다. 무엇보다 나도 상처투성이 인생인데 상대방도 만만치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상처가 많아보였다. 그래서 한 번 만난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날 사이인줄 알았는데 교회 언니들이 나에게 어떻게 사람을 한 번 만나보고 알 수 있겠냐고, 좀 더 만나보라고 강권했다. ‘그래 한 번 더 만나보지 뭐...’ 하고 몇 차례 더 만남을 가졌는데 이상하게 만날수록 기도가 나왔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셔서 쓰시고자 하신다는 마음이 느껴지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길 바라는 마음을 자주 주셨다. 자주 기도를 하다 보니 또 이렇게 인연이 이어지는 것인가 싶은 분위기가 되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만나지 않는 것이 맞는데... 참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낮에 무언가 일을 하다가도 생각나서 기도하게 하고... 돌이켜보면 우리의 만남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깨닫는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게 되었고, 다음해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신혼생활은 쉽지 않았다. 그동안 맘속에 쌓아두었던 시커먼 먹물 같은 죄악과 썩뿌리가 드러나면서 다툼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드러난 내 연약함이 교회에서 참여하는 말씀 공부를 통해서 다시금 점검되고 회개하는 나날이 이어졌다. 그렇게 모든 것이 서툴고 부족한 나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배우고, 성장하고, 성화되게 하셨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나의 기대와 현실과는

차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 사회복지사가 되고자 했던 이유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또한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니 주어진 업무만 감당하는 데에도 벅차고 나의 역량의 부족함이 느껴졌다. 복지사 일을 계속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보다 더 배우고 준비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부터 갖고 닦았던 음악의 달란트로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내가 배운 악기인 아코디언은 아무래도 남한에서는 범용적인 악기가 아니다 보니 교회에서 활용하기 어려웠다. 당시 내가 다니던 교회는 개척교회여서 목사님 따님이 반주를 하고 싱어와 기타 한명이 함께 조출하게 찬양 팀을 꾸리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들의 찬양팀을 세우는 사역을 하시는 한 선교사님께서 교회의 예배 팀을 구성하고 훈련하는데 도움을 주셨다. 그러면서 내가 북에서 아코디언을 배웠다는 사실을 들으시고 나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주셨다. 코드 반주 3개월 정도의 초보적인 수준이었지만 그렇게 배우고 나니 반주에 자신감이 생겼다. 또 악기도 좋지만 내 입술로 찬양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가까운 교회음악원에서 약 반 년 정도 성악 레슨을 받기도 했다.

성악 레슨을 받으면서 음악을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렇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떤 길이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었다. 그 때 특별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일이 있었다. 하루는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전도사님들이 금요기도모임에서 얼마 전 신학교에서 북한과 통일을 주제로 사경회를 가지

셨다고 했다.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귀를 쫑긋하고 듣게 되었다. 전도사님이 재학 중인 신학교에는 신학과와 기독교교육학과, 그리고 교회음악과가 있었는데, 신학과와 기독교교육학과 학생들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데 교회음악과 학생들은 무관심한 모습에 질문도 나오지 않았으며 안타까워 하셨다. 그 사경회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며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갑자기 부담스러운 감동이 들었다. “네가 거기 가서 할 일이 있다.” 분명 교회음악과로의 진학에 대한 감동이었다.

사실 나는 신학과가 아닌 교회음악과이긴 하지만 신학교를 진학한다는 것이 못내 내키지 않았다. ‘오 하나님... 지금 남편 옆에서 사모로서 사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전도사님 사모님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큰 가방을 매고 아이 둘 셋을 유모차에 태워 끌고 다니며 예배드리는 사모님들을 보면서 안쓰러워했는데 거기에 더해 저에게 신학교로 가라고 하시나요?’ 라고 되뇌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서 주신 감동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리해주셨다. 어린 시절 열심히 공부했던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그와 함께 북한에 대해서 나누는 일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 주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나는 교회음악과에 진학하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삼았다.

교회음악과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면접과 함께 실기 시험을 봐야했다. 내가 전문으로 익혔던 ‘아코디언’이라면 실기도 자신 있었지만 입시에서 인정하는 악기가 아니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코드 반주를 위해 익힌 피아노로 입시를 준비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내 고민을 전해들은 한 강도사님 사모님께서 피아노 입시를 전문으로 하시는 집사님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셨다. 그렇게 그분과 주일에는 교회로 활용되는 크리스천 카페에서 미팅을 가졌다. 그분은 내 피아노 연주 수준을 궁금해 하시며 한번 피아노를 쳐보라고 하셨다. 그래서 카페에 비치된 피아노를 쳤는데 코드 반주 수준이다보니 집사님께서 막연해하시는 것이 느껴졌다. 어색하고 민망한 기류가 흐르던 그때, 그 카페에서 봉사하는 사모님이 오셔서 나에게 대뜸 성악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으셨다. 알고 보니 그 사모님은 성악 전공으로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는 분이셨다. 그분은 청년 때부터 북한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마침 탈북민 출신 사모가 교회음악과 입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꼭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는 감사하게도 카페에서 만난 사모님을 통해 성악 레슨을 받으며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다. 비록 전부터 성악에 관심이 있어서 레슨을 받기도 했었지만 악기가 아닌 성악으로 입시를 치루고 전공을 할 생각은 해보지 못했던

터라 ‘어린 시절부터 배워도 잘하기 힘들다는 성악으로 대학을 가고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 과연 성악을 배우는 일은 녹록치 않았다. 게다가 살림을 하면서 입시 준비까지 해나가려니 참으로 녹록치 않았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가고 있던 와중에 덜컥 예정에 없던 임신이 되고 말았다. 입시가 수개월밖에 남지 않았을 때였다.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기쁨과 함께 수많은 걱정이 밀려들었다. 제대로 입시 준비는 할 수 있을지, 갓난아이를 데리고 대학공부는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마음속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렇지만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마침내 시험날이 되어 두 곡의 실기를 무사히 마친 나는 감사하게도 합격통지서를 받을 수 있었다.




합격은 했지만 살림과 학업을 병행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당장 출산과 육아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남편은 어린 시절 가정의 불화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 때문인지 5살 정도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엄마가 육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랐다. 일단 출산으로 1년간 휴학을 하면서 어떻게 학업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런데 복학할 때가 되어서 갑자기 코로나19 대유행이 터졌다. 의도치 않게 2년 동안 수업은 온라인으로 듣고 레슨만 학

교에 방문해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환경이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많은 이들을 큰 고통을 준 코로나19이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부정적 환경도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시는 분임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며 육아에 힘쓰다 보니 어느덧 졸업 문턱에까지 다다르게 되었다.

그간의 인생을 돌이켜 보며 그리 길지 않은 세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 상처받을 일이 많았는지 놀랍기도 하다. 그러면서 그러한 상처와 아픔이 고통으로만 남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하게 된다. 그 아픔 속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달팠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깨닫는다. 나도 모르는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만나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셨고, 어릴 때부터 음악 쪽으로 훈련시켜주셔서 이렇게 음악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고 계신다. 아직은 배우는 단계이지만 나와 같은 탈북 여성들을 비롯하여 상처 입은 이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변화된 이들이 다시금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쓰임 받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남과 북의 상처도 오

직 말씀으로만 치유될 수 있음을 고백한다. 상처투성이인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글을 마무리하며 다시금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한다. 천국에 계실 부모님... 부모님이 너무 그리워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애쓰고 있는 딸을 기쁘게 보고 계시리라 믿는다. 여전히 세상에는 하나님 대신 자신을 의지하라며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당부하셨던 부모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진정으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한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훈련의 길을 곳곳이 걸어간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북한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는다. 그 날에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리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을 준비하고 내일을 기다린다. 이 글을 읽은 독자들도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 되길 바라며, 주님께서 우리의 다음 이야기를 어떻게 쓰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무리한다. (끝)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 목: 한국과 조선 -
남북한 정통성 경쟁
저 자: 김병로
출판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발행일: 2024년 06월 21일
가 격: 29,000원


북한 선교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주변에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북한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쏟는 이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꼭 신앙적인 동기가 아니더라도 통일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업이자 화두로 남아있다. 그렇지만 통일을 이야기 할 때 우리의 관점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속한 남한의 입장에 쏠려있기 쉽다. 필자는 이전에 평소 교제하는 한 탈북민으로부터 한국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상할 때가 많다 이야기를 들었다. 평소에 이분이 통일을 반대하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의아한 마음이 들어 자초지종을 청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국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나는 지하자원이나 북한의 값싼 인력을 이야기

하며 통일의 경제성이나 필요성을 외치곤 하는데 그 부분이 북한 출신으로서 매우 거슬린다는 것이었다. “한국 사람들은 왜 북조선 사람들을 동포라고 부르면서 값 싸게 부려먹으려고만 합니까?”라는 그 분의 질문에 필자는 우리가 가진 통일과 북한에 대한 마음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중심적이지 않은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 오늘 소개할 책 “한국과 조선”은 사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책은 아니다. 그렇지만 필자가 탈북민과의 대화에서 느낀 자기중심성과 그에 대한 반성의 기억을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금 떠올릴 수 있었다.

이 책은 부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한의 정통성 경쟁에 대해 다룬다. 책 제목 ‘한국’과 ‘조

선’은 기실 같으면서도 다른 남과 북의 민족에 대한 이해와 개념을 표현한 것이다. 이 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책의 맨 처음 부분에 언급된 ‘민족’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 우리는 흔히 남과 북을 통틀어서 한민족이라고 일컬으며 동질감을 표현하는데 그 배경에는 어떤 혈통적인 동질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듯하다. 그렇지만 학문적으로 볼 때 민족이라는 개념은 같은 혈통에 따른 종족적인 의미도 있지만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근대의 발명품이자 ‘상상의 공동체’로 본다. 즉 국가 정책이나 각종 미디어, 교육 등을 통해 국가 구성원들이 서로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게 되는, 선천적인 혈통보다도 후천적으로 형성된 영향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한반도를 놓고 보자면 우리가 말하는 한민족은 단군으로 상징되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혈통적인 동질감에 근거를 둔 것이기는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한반도 내에서도 여러 국가가 난립하기도 하고 또 혈통적으로도 단일하다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우리가 말하는 민족 개념은 한반도가 함께 공유하는 오랜 역사와 함께 조선 말기 개화기와 일제 강점기 등을 거치면서 개화된 민족의식이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남과 북은 서로 정반대되는 체제에서 경쟁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 남과 북이 스스로를 이해하는 민족 정체성도 유사하면서도 상당히 다르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적으로 대결해왔던 시간 속에서 다양한 민족에 대한 담론을 쏟아 내왔고, 그 안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주도권 내지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해왔다. 이 책은 남과 북의 역사적 흐름을 찬찬히 훑어가며 이를 정리하고 있다.

저자가 이러한 작업에 몰입한 이유는 통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남과 북이 하나 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작업이 아님을, 서로 다른 체제와 이데올로기 뿐 아니라 민족의식 등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이 책은 보여주고 있다. 남한 출신과 북조선 출신이 입으로는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외칠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와 해석은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이러한 차이가 분열과 반목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새로운 공감대로 채워짐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나가기, 통합 국가 건설 과정에서 국가와 민족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통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며 통일이라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양국을 합치는 일은 오히려 쉬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의 통일은 의외로 매우 어렵고 지난한 작업이 될 것 같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치우친 사고를 하기 쉽기 때문이다. 통일의 때에 남과 북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통일 코리아의 정체성을 함께 확립해 나갈 수 있길 바라며, 풍성한 역사적 자료 조사와 함께 통일에 대해 꼭 생각해보아야 할 화두를 던지고 있는 ‘한국과 조선’의 일독을 권해 본다. 

북한 압록강 지역 홍수... 광범위한 침수 피해 발생



〈김덕훈 내각총리, 조용원 당중앙위 조직 담당 비서 등과 함께 고무 구명정을 타고 침수 피해 지역을 둘러보는 김정은 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의 압록강 유역에 장맛비로 인한 대홍수가 발생하면서 수해에 고통받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월 27일 폭우로 인해 압록강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여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여러 섬지역들에서 5천여명의 주민들이 침수위험 구역에 고립되는 위기가 조성됐다고 밝혔다. 또 7월 31일에는 무려 4,100여세대에 달하는 살림집과 근 3,000정보의 농경지를 비롯하여 수많은 공공건물과 시설물, 도로, 철길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북한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를 이용해 신의주를 방문하여 보트를 타고 수해지역을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된 영상에서 김 위원장이 보트를 타고 돌아본 마을은 거의 모든 건물이 지붕까지 물에 잠겨 마치 거대한 호수처럼 보일 만큼 피해가 심각해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위성 이미지 분석 결과 (평안북도 신의주시) 위화도 전체, 의주군, 자강

도 만포시까지 침수가 식별됐다고 밝히면서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국가정보원은 8월 26일 국회 정보위에서 “실제적 물적 피해가 많은 곳은 자강도로 분석된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평안북도를 직접 방문하고 평안북도 주민들을 평양으로 초청했다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한 자강도에 대해 일절 언급과 외부 노출이 없다. 상당히 흥미롭고 특이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민심 달래기 행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8월 8~9일 평안북도 의주군 수해 지역을 찾아 어린이, 학생, 노인, 환자, 영예 군인, 어린아이가 있는 어머니 등 취약 수재민이 평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그에 따라 8월 15일 1만3천여명이 평양 숙소로 도착했다. 수해로 망가진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등 북부 지방을 현대화해 재건하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은 수해복구와 관련한 외부의 지원을 거절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8월 1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구호물자 제공을 제의했으며, 국제기구들도 지원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은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러시아와 중국의 수해복구 지원 의사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하며 자력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참고: 연합뉴스 외 언론보도 종합)

걸어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북한 귀순자들 잇달아



8월 20일 새벽 북한군 1명이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하였다. 북한군은 강원도 고성 동해선 인근 오솔길을 따라 도보로 육

군 22사단 작전지역으로 귀순했다. 그는 군복을 입고 있었고, 계급은 하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역 DMZ 북측에서 북한군은 최근 지뢰매설 및 불모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우리 군은 작업하는 북한군이 들을 수 있게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고 있었다.

앞서 지난 8월 8일에는 북한 주민 1명이 썰물 때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서해 교동도 인근에 도착한 뒤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탈북 워킹맘 육아 지원 강화... 제3국 출생 자녀도 대입 특례

정부가 여성 탈북민의 일·육아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8월 8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여성가족부가 운영 중인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대상자에 탈북민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것으로, 현재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자(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장애부모, 다문화 가정)에 탈북여성은 포함돼 있지 않다.

또 탈북 가정 내 제3국 출생 자녀도 탈북 청소년

과 동일하게 대입 특례와 대학교 학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 입법 예고됐다.

탈북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미래행복통장 가입 조건도 완화한다. 이 통장은 국내 입국 5년 이내 탈북민이 가입 대상이며, 병역·출산 등 사유에만 입국 7년 이내 탈북민까지 가입을 허용한다. 통일부는 앞으로 학업과 육아도 연장 사유로 추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1천만원(1인 기준)인 탈북민 초기 정착지원 기본금 인상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탈북민 채용 확대를 위해 관련법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참고: 연합뉴스, 8월 8일)

북한, '자폭형 무인기(드론)' 성능시험 공개



은 이스라엘제 자폭형 무인 공격기 ‘하롭(HAROP)’과, 십자형 날개 기종은 러시아 제 ‘란셋(Lancet)-3’ 또는 이스라엘 ‘히어로(HERO) 30’과 각각 외형이 비슷하다. 십자형 날개 기종이 구조와 크기 면에서 란셋-3에 더 유사하다는 점에서 북러 간 드론 협력 가능성도 제기됐다.

자폭형 무인기는 제작 비

용이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표적에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어서 순항미사일의 역할을 일부 대체할 수 있다. 특히 저소음에 저공비행이 가능하며 레이더에도 잘 잡히지 않아 사전 대응이 어렵다. 최근 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탱크를 상대하는 무기로 무인기가 주목받으면서 다시금 중요성이 부각되는 추세다. (참고: 연합뉴스 외 언론 보도 종합, 8월 26일) 

북한이 신형 자폭 무인기(드론)를 공개한 가운데, 성능 시험장에서 현장을 지도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만족감을 드러냈다.

8월 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김 위원장은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를 찾아 최근 개발한 무인기의 타격시험을 지도했다. 자폭 무인기는 모자이크한 상태로 공개됐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전략 정찰 및 다목적 공격용 무인기 외에도 자폭 무인기를 더 많이 개발하고 생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북한은 이날 시험한 모든 무인기가 사전 설정된 여러 경로를 따라서 비행한 후 지정된 목표물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파괴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드론 개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공개된 무인공격기 가운데 가오리형 날개 기종

북한 억류 선교사, 임의구금인지 유엔 독립기구서 심의 예정


국제법을 위반한 ‘임의 구금’ 피해를 판단하는 유엔의 독립기구(옴부즈맨)가 이르면 다음주 북한의 한국인 억류와 탈북민 강제 복송에 대해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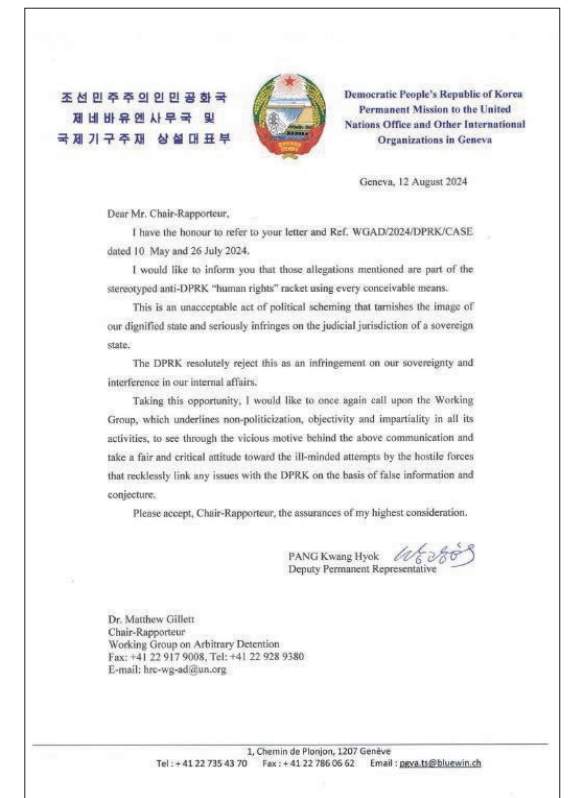
8월 19일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에 따르면 주(駐)제네바 북한대표부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의 ‘임의구금실무그룹(WGAD)’에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와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씨의 임의 구금 피해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TJWG는 김정욱 선교사 등의 장기 억류와 김씨 복송이 임의 구금에 해당한다는 진정을 유엔 WGAD에 제기했다. WGAD는 이 사안에 대해 북한에 답변을 요구했으며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는 8월 12일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답변서에서 북한대표부는 임의 구금 혐의에 대해 “전형적인 반(反)공화국 ‘인권’ 소동”이라고 반발하고, “존엄한 국가 이미지를 손상하고 주권국의 사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려는 정치적 모략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한국인 억류와 탈북민 복송이 왜 임의 구금이 아닌지에 관한 구체적인 해명은 제시하지 않았다.

WGAD는 피해자 측의 주장과 해당 국가의 답변, 피해자 측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의 구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빠르면 8월 마지막 주에 열리는 WGAD 제100차 회기에서 이 사안이 다뤄질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JWG의 신희석 분석관은 “북한이 정당한 사

법권 행사라고 반발만 할 뿐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은 오히려 북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제 100차 회기에) WGAD에서 심의된다면 이르면 다음 달(9월)에 임의 구금으로 판단하는 의견서가 나올 수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올해 11월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도 한국인 억류자와 탈북민 강제 복송과 관련한 권고가 반영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참고: 연합뉴스, 8월 19일) 



<북한이 김정욱씨 등의 임의구금 혐의에 대해 유엔 WGAD에 제출한 답변서 (사진=전환기 워킹그룹, 연합뉴스 재인용)>

러시아 대학생 4년만에 북한 입국해 김일성대서 연수



〈김일성대 연수를 위해 입국한 러시아 학생들 (사진=주북 러시아 대사관 텔레그램)〉

러시아 외교관 양성 전문 대학교 재학생들이 김일성대 연수를 위해 북한에 입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된 지 4년 만이다.

주북 러시아 대사관은 8월 22일 텔레그램을 통해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 학생 5명이 지난 21일 대사관을 방문했다”며 “이들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연수를 위해 4년 만에 평양으로 왔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조선어 학습에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그들을 평양의 신입 외교관으로 만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최고 명문대학 중 한 곳인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은 외무부 산하 교육기관으로 외교관 전문 양성학교다.

앞서 북한은 중국 정부 장학생 41명과 자비 유학생 45명 등 중국인 유학생의 북한 입국을 허용한 바 있다. 지난 5월 주북 중국 대사관은 중국 유학생의 북한 입국 사실을 공개하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북한에 외국 유학생이 입국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2023년 9월 외국인 입국 허용 방침을 밝힌 후 각국 정부 대표단, 외교단, 러시아 관광객 등에만 제한적으로 북한 입국을 승인하고 있다. (참고: 연합뉴스, 8월 23일)

북한, 접경지역 중국 무선국 설치 반대… 유엔기구에 통보

중국이 북한과 접경지역에 라디오 방송 등에 사용할 무선국 설치를 계획하자 북한이 자국 주파수에 심각한 간섭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교도통신이 8월 25일 보도했다. 북한은 중국이 계획 중인 무선국 가운데 접경지역인 랴오닝성 단둥시 등 17곳을 문제시해 사전 조율이 없었으며 국제적인 무선통신 규칙에도 저촉된다고 지난 7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통보했다.

국제적으로 주파수를 관리하는 유엔의 전문 기

구인 ITU가 지난 6월 공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내 191곳에 무선국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중국과 1981년 4월 서명한 합의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교도통신은 북한과 중국 간 의견 대립이 표면화된 것은 이례적이며 북한이 중국과의 현안을 유엔기구에 넘긴 것도 드문 일이라고 전했다. (참고: 연합뉴스, 8월 25일)

1 북한 여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동안 가부장적 문화와 사회 체제 속에서 상대적으로 무시받던 여성들이 장마당의 활성화에 따라 북한 사회를 이끄는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문화적 제약이 남아있는 가운데 여성들에게 가계 경제와 국가 노동력 및 인구문제까지 과도한 책임이 부여되는 모습입니다. 북한 여성들에게 하루 속히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고, 복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이들이 가진 폭넓은 관계망을 통해 북한 복음화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 여성들과 해외 북한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사역도 안전에 유의하는 가운데 힘 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압록강 유역의 대규모 홍수로 인해 신의주시와 의주군을 비롯한 평안북도와 만포시 등 자강도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확인이 어렵지만 수해 규모로 미뤄 볼 때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며, 가옥과 논밭의 침수로 인한 피해도 우려됩니다. 북한 당국은 지도자의 애민정신을 부각시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지만 외부의 지원은 거부하고 자력으로만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피해를 입은 이들이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에게 필요한 물자들이 공급되고 원활하게 수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북한의 기독교 박해 종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해 10월 복송된 탈북자들 중에 성경을 접하거나 기독교 교리에 대해 들었다는 기록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가차 없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신앙을 가진 탈북자들이 정치범으로 간주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복송된 신자들과 강제복송 종단을 위한 기도가 특별히 요청됩니다. 또한 선교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북한 내 지하교회 적발 사건들이 여러 지역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순교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 뿐 아니라 갑작스럽게 행방이 묘연해진 가구들을 고려할 때 예상 피해 규모가 어림잡아 2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 속히 중단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붙잡힌 성도들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 기도합니다.

4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가 억류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억류된지 10년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구명을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씨

북한 기도 제목

가 언론을 통해 석방을 촉구하기도 하였고, 북한인권NGO를 통해 관련 유엔 기구에 임의구금 심의 요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들 갇힌 선교사들을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며 갇혀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하심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들이 하루빨리 자유함을 얻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5 해외 북한선교현장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에서 탈북민 사역을 하시다가 러시아 정보기관에 의해 간첩혐의로 체포되어 2월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구금중인 백 선교사님의 구금기간이 9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북러 관계 밀착으로 해외 북한 노동자와 탈북자 사역의 위축 우려가 높아지던 중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 해외 북한 선교 현장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절실함을 일깨워줍니다. 체포된 백 선교사님의 안전과 무사귀환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의 안전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 선교 현장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국경지역의 현장 사역자와 북한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제목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홍수와 관련하여 제 3국 북한 여성들도 크고 작은 피해와 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도하는 압록강 하류 뿐 아니라 두만강 유역에서의 홍수 피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가족들의 비보를 듣고 망연자실해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 안에서 위로받고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북한의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또한 이들과 함께하는 현장사역자들에게 지혜와 강건함을 더하시고 안전하게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두 손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4년 8월 30일

2024 머스카슬론 한국대회

CAMP PRAY RUN!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_계시록 3:2

24. 10. 8(화) - 10(목)



장소 경기도 연천 고대산 캠핑 리조트

참가비 모금 참가자 100만원
일반 참가자 30만원

모집인원 선착순 50명
*해외참가자 40명과 함께 합니다.

모집기간 1차 8월 2일(금)
2차 8월 30일(금)

일정 연천 땅밋기 기도회
캠핑(고대산 캠핑 리조트)
익스트림 스포츠 대회

대회등록 산악 하이킹 (20km, 40km, 60km)
산악 마라톤 (10km, 20km, 42km)
산악 자전거 (100km)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아래 QR코드 참고)





Mission
Bible
College

성경대학시리즈

성경이 말하게 하라!

셀프 스터디에서부터 국내 목회 현장,
해외 선교 현장까지

성경대학시리즈는 성도들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사명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수년간 사역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성경교육프로그램입니다.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현지인 성도를 영적 리더로 길러내고자 하지만
훈련과 자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현장**,

각종 이단과 불건전한 신학의 홍수 속에서 성경으로
균형잡힌 건강한 성도들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목회현장**,

그리고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지만
어려운 훈련 프로그램은 부담스럽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평신도**를 위해

성경대학시리즈(Mission Bible College)의 특징

1. 성도들이 복음의 기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경을 깊이 있게 접하고 영적 리더로 도약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 교사가 앞에서 직접 가르쳐주는 스타일로 구성되어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고, 개인 묵상과 소그룹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과 묵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성경 자료가 부족한 선교지를 위해 성경 본문과 참고 자료들을 한데 모아서 정리하여, 한 권의 책만으로도 깊이 있는 성경 공부가 가능합니다.
- 미션 바이블 칼리지는 4개 과정, 40여개 과목으로 계속 개발, 발간될 예정입니다.

※ 교재 구입 관련 자세한 문의는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